

“소리탐구자, 한 챕터 정리…새로운 음악여정 펼칠 것”

“오전 5시. 제가 작곡한 곡을 연주해 매일 한 곡씩 유튜브에 공유합니다. 피아니스트보다는 소리탐구자로 불러주세요.”

피아니스트 이상록씨가 최근 유튜브(@bluepiano rog_m)를 개설. 직접 작곡·편곡한 곡을 매일 업로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새벽 5시는 하루의 소리를 정리하는 의식같은 시간”이라며 “하평 소재 작업실에서 바흐로 하루를 시작해 인간의 근본적인 고독, 권태라는 작업적 테마를 바탕으로 어쿠스틱 피아노의 소리에 집중한다”고 말했다.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곡들은 이렇게 그가 작곡·편곡해 연주, 아이폰으로 녹음한 것들이다. 유튜브 동영상 목록을 살펴보면 ‘다시, 미진바람’을 비롯해 ‘영원한 안식과 평화불’, ‘소리를 잃은 학교중’, ‘귀천’, ‘그림자겨울’ 등 유려한 연주로 귀기울이게 하는 곡들로 채워졌다. 그가 지난 2012년 펴낸 첫 시집 ‘지금 달에는 비가 내리고’에 수록한 시·사진과 연장선상에 있는 ‘소리, 숨’과 ‘다시, 달에게’ 등도 들

피아니스트 이상록씨 작·편곡 유튜브 공개…활동명 ‘로깅’ 클래식 전공 타 예술장르와도 교류 활발…광주 공연 계획

어볼 수 있다.

업로드된 곡은 가사가 없고, 영상 역시 곡에 대한 설명이 따로 게재돼 있지 않다. 언어로 모두 표현하기 힘든 느낌, 그 본질을 음악에 오롯이 담고 싶다는 바람에서다.

피아니스트보다는 소리탐구자를 추구하는 그의 또다른 이름은 ‘로깅’(rog_m)이다. 이상록의 ‘록’과 고등학교 시절부터 해마다 읽은 까뮈의 ‘이방인’에서 주인공 메르소의 이니셜 ‘M’을 따 왔다.

로깅으로 활동하면서 피아노로 이끌어낼 수 있는 소리 자체, 어쿠스틱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최상의 소리를 추구하고 있다. 정통 클래식을 전공한 그가 그동안 클래식을 넘어 다양한 예술 장르와 교류, 작곡·편곡·연주를 통해 새로운 음악에 도전해온 배경이다.

객석과 가까이 관객들과 온도를 느낄 수

있는 게 좋아 경작된 공연장 무대에서 벗어나던 게 일반 가계나 미술관 등에서의 연주회로 나타났다. 지난 6개월간 전주 소재 한 가게에서 피아노 한 대로 매달 연주회를 열었다. 지난 5일에는 광주 오월미술관에서 독주회 형태의 기획공연 ‘소리, 숨’을 선보였다.

광주에서 독주회를 선보인 것은 2000년대 이후 처음이다. 12·3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한다는 의미를 담은 무대였다.

이상록 소리탐구자와 오랜시간 함께 호흡을 맞춘 지박(첼로), 나무(소리·북·몸짓), 현악(사운드디자인), 한울(비디오디자인) 등과 무대를 꾸렸다. 단순한 피아노 연주회가 아닌 악기와 소리 등이 겹치는 과정, 소리에 반응하는 움직임, 텍스트가 빛

으로 산란한 영상 등으로 구성된 무대로 하나의 공연예술을 선사했다.

그는 “광주에서의 공연을 기점으로 다시 출발선에 섰다”며 “이번 무대로 제 한 챕터를 정리하고, 앞으로 새로운 음악여정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피아니스트 이상록은 조선대 사범대학 음악교육과를 졸업하고 러시아 국립 음악원 그네신에서 수학하며 피아노와 실내악, 음악코치 등 세 개 학위를 받았다.

러시아 유학 당시 불쇼이오페라단 전속 가수, 크렘린 오케스트라 소속 기악 연주자들과 수차례 음악회를 가졌고, 다양한 형태의 클래식 음악회, 기획 연주, 성악 리사이클, 실내악 콘서트 등에서 연주자 및 음악감독, 작곡, 편곡으로 활동하고 있다. 광주대, 순천대, 전남대, 조선대, 호신대 등에서 외래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피아노 앙상블인 선 클라비어(SUN_KLAVER)와 위즈(WE_us) 앙상블에서 음악감독, 광주교류센터 음악위원, 광주음악협회 피아노 분과위원장을 역임했다.

글·사진=정채경 기자 view2018@



바위처럼 단단한 마음…삶의 태도 시각화

윤준영 개인전 20여점 작품

14일까지 예술공간 집 진행

윤준영 작가의 여섯 번째 개인전이 지난 11월 25일 개막. 오는 14일까지 예술공간 집에서 진행된다.

지난 2022년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의 개인전 이후 3년만의 전시인 이번 개인전은 ‘밤을 딛고, 켜켜이’라는 타이틀로 작가의 가장 최근 작업이 이뤄진 회화와 함께 설치작품 20여점이 선보이고 있다.

작가의 최근 작업은 ‘돌’이라는 존재에 집중돼 있다. 작가에게 돌은 인간과 시간을 넘어,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보편적 상징이자 믿음의 대상이다. 산과 마을의 상황당에 쌓인 돌탑, 절벽에 새겨진 마애불, 불상을 새기는 불교적 행위 등은 시대와 종교를 넘어 인간이 마음속 염원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읽힌다. 작가는 산을 거닐며 방문객들이 서로 말하지 않아도 하나 돌씩 돌탑을 쌓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돌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경이심을 갖게 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돌은 단순히 놓이는 물체가 아니다. 빛과 바람, 비 등 자연적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천년, 이천 년에 걸쳐 깎이고 닳으며 둥글게 변형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생애와 비교할 수 없는 시간성을 지니는데 작가는 이런 돌의 시간성과 형태, 균형을 화면 위로 옮겨, 불안과 취약함 속에서도 삶을 살아가는 태도, 즉 믿음을 시각화했다. 돌과 함께 등장하는 ‘작은 집’은 작가 자신을 상징한다. 작은 집은 돌과 관계를 맺기도 하고 잠시 떨어지기도 하면서 화면 속 존재로 나타난다. 작가는 돌이라는 영겁의 시간을 보낸 자연물 앞에



‘다달 곳’

서 한없이 작아진 ‘나’를 발견하며, 하루 하루 불안을 믿음으로 바꾸는 과정을 반복한다. 작은 집은 거대한 돌을 지탱하거나, 돌 안에 숨으며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예술가로서의 염원을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돌과 집, 그리고 자연물이 이루는 관계는 단순한 객체의 집합이 아니라, 서로의 과정과 시간을 존중하며 만들어진 하나의 생태계로 확장된다. 이번 전시 ‘밤을 딛고, 켜켜이’는 이런 믿음과 태도가 화면 위 돌에 켜켜이 쌓임으로 드러나는 순간을 담았다.

작가의 올해 작업한 작품인 ‘Belief’, ‘불확실한 믿음과 그림에도 불구하고’, ‘같은 믿음 위에’ 등은 돌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관계와 균형, 불안과 믿음의 긴장을 보여준다. 화면 속 돌은 서로 다른 크기와 형태로 배치되며, 관객에게 시각적 긴장과 여유를 동시에 제공한다. 관객은 이를 통해 자신의 안녕과 소망을 되돌아보게 되며, 작품 속 켜켜이 쌓인 돌의 질서 속에서 마음속 신념과 삶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기존 회화작품과 더불어

어 설치작품도 선보인다. 전시장 한 칸 작은 방에 한지로 감싼 커다란 돌탑을 만들어놓았으며, 작은 돌들을 관객이 직접 쌓아볼 수 있도록 했다.

고윤정 디렉터(플로우 앤 비트 디렉터)는 전시서문을 통해 “작가의 불안을 예술가로서의 하루하루에 대한 태도를 낳고, 그 태도는 다시 작가의 예술가적 신념으로 변환되며, 관객은 그렇게 쌓인 돌을 보며 다시 자신의 안녕과 기원을 그림에 담게 된다. 하나의 정갈한 톤으로 단단하게 쌓여가는 윤준영의 감각이 관객에게 긍정의 톤으로 달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윤 작가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너무 많은 소리와 질문들 속에서 살아가는 그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헤매면서 살아가는데, 나 자신을 믿음으로서 바위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지 않고 단단히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과 다짐을 작업으로 풀어내고 있다. 그림에 담은 나의 바람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윤준영 작가는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에서 한국화를 전공했으며, 하정웅 청년작가 초대전 선정, 광주비엔날레 광주파빌라온 참여,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등 전시에 참여했다.

광주신세계미술에서 신진작가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부터 국내외 아트페어를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과 전남도립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돼 있다.

한편 전시 기간 중인 지난 4일에는 광주비엔날레의 GB작가탐방도 성황리 진행됐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광주미협 제13대 지회장 후보 접수 1명 그쳐

접수결과 한국화가 정암 이병오 단독입후보

선거권은 회비 납부 회원…선거는 20일 실시

광주 최대 규모 예술조직인 (사)광주미술협회(회장 박광구·이하광주미협)의 제13대 지회장 선거가 단수 후보로 치러지게 됐다.

8일 광주미협에 따르면 최근 제13대 지회장 후보 접수 결과 정암 이병오 후보 1명이 접수함에 따라 찬반 투표로 차기 회장 선임이 이뤄지게 됐다. 이같이 단수후보로 선거가 치러진 이전 사례로는 제10대 회장 공모 때 나상욱 전 지회장이 단수후보로 접수돼 지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광주미협의 차기회장은 단수 후보가 돼 찬반투표에 의해 선택하게 됐다. 복수후보의 경우 계파별로 경쟁에 돌여가기 때문에 선거정국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는 훨씬 유리한 구석이 있는 반면 단수후보의 경우 그만큼 바람을 불러일으키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광주미협 회장 선거는 차분한 가운데 열리기를 바란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1958년 전남 해남 출생 정암 이병오 후보자는 호남대 미술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 개인전 5회와 그룹전 200여회에 출품했다. 개인전을 10년이 넘도록 열지 못한다는 경제적 이유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회장에 당선되더라도 바쁘다는 이유를 안 내세우고 개인전을 열여볼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암은 대한민국의미술대전과 대한민국의미술대전 운영·심사위원장, 5·18 전국회화대회 운영위원장, 한국문화협회 부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문



정암 이병오 후보

인화협회 자문위원과 광주지회장을 맡고 있으며, 정암문인화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다.

정암 이병오 후보

자는 2009년 광주미협 회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다.

이병오 후보자는 16년만의 회장 선거 재출마와 관련해 예전에 한번 출마해 고배를 마신 것을 주변에서 잘 알고 있는데 다시 도전하는 것이니만큼 잘하고,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용기를 북돋워줘 진작 회장에 뽑히면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보람을 느낀다는 소회를 전했다.

이 후보자는 “회장 임기가 4년으로 임기 만료 1년전 쯤에 차기 회장을 두고 움직임을 많이 포착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잡히지 않는데다 주변 동료나 선후배들로부터 무언의 압박같은 게 느껴졌다. 또 짧은 시간 두고 관망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그런 시선이 왔다”면서 “그러나 여러 여건으로 먼저 움직이기는 쉽지 않았지만 미술협회를 위해 분사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올해 회장 선거는 오는 20일 광주시립미술관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선거가 진행되는 가운데 선거권은 광주미협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해 부여된다. 차기 회장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 4년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

회원들의 사진 열정…자연의 아름다움 찰카

광주사진클럽 회원전 14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전라광주 사진 동호인들로 구성된 풍경 사진동아리 ‘광주사진클럽’(회장 김승홍)은 창립 16주년을 맞아 9일부터 오는 14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1층 전시실에서 올해 회원전을 진행한다. 출품작은 회원 23여명이 지난 1년간 전국 각지를 찾아 촬영한 작품 55점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자연의 사계와 일상 속

풍경을 주제로 다양한 촬영기법을 선보이는 가운데 드론 항공촬영과 장노출을 활용한 실험적 작품들도 출품돼 눈길을 끈다.

광주사진클럽은 2009년 창립 이래 지역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며 사진교육과 정기출사, 반개출사 등 활동을 하고 있다.

김승홍 회장은 “16년 동안 멈추지 않고 사진을 함께해온 회원들의 열정을 담아낸

자리”라며 “관람객들이 잠시나마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품회원으로는 김동환 김승홍 김재홍 김종국 노경옥 노병희 박준기 양성영 용세철 원순애 이돈성 이숙 이태연 임동명 임명철 전지현 정종락 조남종 조동원 최종열 하미숙 황금동 황지원씨 등이다.

광주사진클럽은 올해 열린 제55회 광주사단합동전에서 우수동아리상을 수상했으며 ‘20결상’ 수상자를 2명(임동명, 황금동) 배출하기도 했다. 전시는 무료로 진행되며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고선주 기자 rainidea@



김승홍 작 '시간의 흔적'



황금동 작 '광주호 생태공원 겨울'